

6. 판윤공파(判尹公派)

용부 用富, 8세, 판윤공파 중시조 개국공신(開國功臣). 판윤(判尹)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 用武용무 司宰監副正 사재감부정						星州牧使派성주목사공파 南海縣令派남해현령공파 (全州)判官公(전주)판관공파 進士公派진사공파			
							2 用休용휴 文司評 문사평						司評公派사평공파			
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 경헌공 (1160~70년대)	德秀 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 산 부 원 군 고려 충렬왕 (1170~90 년대)	元烈 원렬 太僕尹 태복윤 성 산 부 원 군 고려 충렬왕 1290 년대	敬輿 경여 典客令 전객령	欽金 진금 左贊成 좌찬성	1 致龍지룡 都食議事 도첩의사사	1 玉亮옥량 禮曹判書 예조판서 고려 공민왕 조선 태조 (1370~90 년대)	3 用富용부 開國功臣 判尹 조선 태조 1390년대	1 良穰양적 資憲大夫 자헌대부	禎정	의倚	천보 千甫	중만 仲萬 생부 생부 사 재 감 정 司宰監 正	광미 光美 충순위사 정 忠順衛司 正	건乾	2 順孫순손	1 克守극수
															3 克禎극정	
								3 終孫종손							克昌극창	
								말손末孫 어모장군 禦侮將軍							2 克禮극례 3 극무극武	
								2 白백	存夫존부 散員同正 산원동정	良양 軍紀判官 군기판관	哲철	4 仲南 중남	漢東 한동	崇智 송지	貴善 귀선	春敦춘경

옥량의 3남. 조선 태조(太祖)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사저(私邸)에 잠저(潛邸, 숨어 사는 것)할 때에 성심을 다하여 보호하고 또한 태조대왕(太祖大王)으로 등극한 후에도 역시 충성을 다하여 호위(護衛)하였으므로 태조대왕(太祖大王)이 등극하시어 바로 녹권(錄券: 고려 · 조선 시대 공신에 책봉된 사람에게 지급한 문서로 왕명에 의해 공신도감에서 발급)을 친필(親筆)로 써서 주었다. 통훈대부 판윤(通訓大夫 判尹; 정3품, 지금의 시장급)에 명한다고 어필(御筆: 임금이 손수 글씨를 씀)로 쓰시어 내리셨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판윤공사적(判尹公事蹟)에 의하면, (요약)

서기1393년(홍무洪武 26년; 洪武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 洪武帝가 사용한 연호) 9월에 태조대왕(太祖大王)이 녹권(錄券)을 내리셨으며 사전(같은 해 8월 10일)에 좌승지(左承旨) 이근(李愍)이 왕의 뜻을 미리 차례로 본인에게 구두로 전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나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의 공로를 밝혀서 보답하는 것은 고래(古來)로 내려온 상례(常例)이다.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승정원에 속한 정3품벼슬) 문중(文中)과 대장군(大將軍) 조경(趙徹) 등(等)은 내가 사저(私邸)에서 잠거(潛居)할 때부터 생명과 안녕을 보호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금일까지 왔는데 공훈을 포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유사(有司)를 거행(舉行)하라고 명하였다. 왕지(王旨)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포상하는 것은 고래(古來)로부터 있는 법제이거늘 하물며 건국 초를 맞이한 이때 그 공로를 표창하는 것은 더욱 마땅한 일이라 하셨다. 전에 명시한 운정(雲正: 벼슬 이름) 김보(金寶)와 전군기시감(前軍器寺監)(군기를 맡은 벼슬이름)성걸(成乞) 등 삼십구명이 또한 내가 재위전(在位前)에도 전쟁이 나면 나아가 장군으로 조정에 들어오면 재상(宰

相, 충신忠臣)으로서 자기 죽음을 맹서하고 나를 호위(護衛)하고 나아가 백성을 살피주어서 나는 가만히 앉아서 대업을 성공하게 되었으니 실로 감사하였으며 어찌 그 공을 잊으리오. 혹은 저 멀리 요동(遼東)에까지 가서 우리 의거(義舉)하든 날에 비록 참여치 못한 사람이 있으나 이 어찌 감히 빼놓을 수가 있으리오. 기(其) 포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거행하라」하셨다.

판윤공(判尹公)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은 양적(良績)이며 벼슬은 정2품의 자헌대부(資憲大夫)였으며, 차남(次男)은 백(白)이다. 양적의 아들 정(禎)은 학생(學生)이고, 백의 아들 존부(存夫, 10세)는 산원동정(散員同正) 벼슬을 지냈다.

(註: 조선시대 학생(學生)이라는 호칭은 주로 성균관에 소속된 유생이며 넓은 의미로는 향교(鄉校)나 서원(書院)에 소속된 유생까지도 학생이라 불렸다. 보통 양반의 자제들이거나 중인 이상이며 과거시험을 준비하거나 유학을 공부하였다.)

(註: 산원동정은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명예직 또는 무보직인 관리를 이른다)

32.判尹公事蹟(公之事蹟遺失無傳故抄附其錄券)

公諱用富判書公季子也 太祖大王潛邸時殫誠保護及其龍飛竭忠翊贊故 太祖大王登極初以親筆書 賜錄券其略曰玄用富 錄券 王旨 御筆直下 行通訓大夫判尹 洪武二十六年九月日 洪武二十六年八月十日左承旨李懃次知口傳 王旨敷奏以言明試以功而報其庸者古之道也判校書監事文中大將軍趙卿等自 予潛邸安危注意艱險不避以至今日其褒賞之典有司舉行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矧當創始之初是宜先舉其功前書雲正金寶前軍器寺監成乞等三十九員亦於 予出將入相三十餘年許身以死捍衛寡躬俾保生民又致坐成大業式至今休功誠不能忘也或適遼而舉義之日雖有不與焉者功安敢略乎其褒賞之典有司舉行 洪武二十八年二月初五日都承旨韓尙敬次知口傳 王旨思審是白內乎上頂功臣等或自 殿下潛邸之時服勤內外積其歲月及其凶徒謀亂請聲其罪以汨其謀爲白齊或自辛氏竊位亂極思治之際安危注意於 殿下諭德宣譽馴致今日爲白齊或於 殿下出將入相三十餘年間許身以死不避艱險捍衛 殿下馴致今日爲白齊或方 殿下卽位之初閭閻未備而損益前朝盛時之制以飾宮儀爲白齊或方 殿下卽位之時在於日官謹卜天時勸登大位爲白齊爲等如 王旨內貌如功勞可尙是白教等用良更良功臣職名單子申(右錄券文)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1 克守 극수	1 濱 빈	1 鳳進 봉진	1 應信 응신	3 得逸 득익	1 尙益 상익	1 銀溫 은온	1 萬慶 만경	1 瑞華 서화	1 泰基 태기	1 宗默 종묵	1 星烈 성렬	2 禹衡 우형	2 雲鳳 운봉	4 忠國 충국	1 純血 준혁		
3 克禎 극정	德琛 덕침	1 德瑄 덕진	1 應鳳 응봉	1 義弘 의홍	1 宗立 종립	2 以極 이극	1 後高 후설	1 道興 도흥	1 聖泰 성태	1 彬 빈	1 翊洙 익수	1 必祺 필기	1 禹錫 우석				
		4 德進 덕진	길	混一 혼일	端贊단찬	道健 도건	鉅정	德邵 덕소	以天 이천	宗賢 종현	成雲 성운	덕德 소설가					
				泰一 태일	聰敏총민	尙契 상계	起長 기장	光郁 광옥	大成 대성	碩承 석승	永洽 영합	忠默 충묵	弘極 홍극	壽德 수덕			
			唾질	旻一 민일	九淸구청	處華 처화	殷景 은경	雲澤 운택	京周 경주	尙權 상권	聖赫 성혁	칠종 七鍾 북한정치인	一英 일영				
克昌 극창	祥상 덕등참봉 德陵參奉	起龍 기룡 어모장군 禦侮將軍	逸일	德文 덕문	瓊찬	仁述 인술	一泰 일태	聖弼 성필	祥履 상리	亨默 형묵	仁範 인범	壽珍 수진	義錫 의석	俊極 준극 峻極 북한정치인			
2 克禮 극례	1 松壽 송수	3 得一 득일	1 濬 준	1 太昊 태호	2 世璉 세련	4 壽崱 수급	1 以貞 이정	2 命三 명삼	1 大傑 대걸	1 造成 호성	2 宗根 종근	1 界吉 승길	1 禹順 우순	1 熙云 희운	1 龍澤 용택	1 哲奎 철규	1 成日 성일
3 克武 극무	응두 應斗 어모장군 禦侮將軍	구정 九鼎 김주吉州 훈도訓導	연演	태허 태허	이규以規 백암白麓 성리학자	益章 익창	慶屋 경후										
春敬 춘경	應秀 응수	宗覽 종람	1 忠立 충립	4 仁白 인백	泰興 태흥	命壽 명수	2 膺錫 응석	2 尙容 상용	1 道點 도점	垣國 원국 목사	1 영학永學 민중신학자						
											2 鳳學봉학 홍남철수 영웅	正柱정주					
											3 時學시학 해군장설 주역						

빈 彬, 27세.

자 문백(文伯), 호 인대(麟臺). 1736년(영조(英祖)12년)생, 족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있다. “교자유학가심빈부족이급의량매전시독이계지종성대유(敎子遊學家甚貧不足以給衣糧賣田市犢以繼之終成大儒)”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타지로 유학을 시켰는데 집이 매우 가난해 옷과 양식을 대주기에 부족해 받을 팔고 송아지를 팔아 공부를 계속시켰다. 마침내 큰 유학자를 만들었다.

익수 翼洙, 28세. 유학자, 구암(龜巖) 이원배(李元培)의 문하

1766년(영조 42)에 태어났다. 자는 파향(派鄉), 호는 회당(晦堂). 부는 현빈(玄彬)이다. 가세가 빈궁하였으나 청백하여 처사(處士: 관직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지내는 선비)로 이름났다. 19세 때 구암(龜巖) 이원배(李元培)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학문을 연구하는데 적은 것부터 시작하여 식견을 넓혔으며 빈곤에 처하여도 지조를 굳게 하였으므로 명성이 높았다. 김이양(金履陽: 함경도 관찰사, 이조판서 1755-1845)의 천거로 지릉참봉(智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노부모를 위해 나가지 않았고, 다시 상신(相臣) 김이교(金履喬: 조선통신사, 우위

정, 1764-1832, 김이양과 형제간)에 의해 천거되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사마천(司馬遷)·반고(班固)·한유(韓愈)·구양수(歐陽修)의 글을 애독, 뒤에는 주자학(朱子學)에 전심했다. 스승이 죽은 뒤 3년 상을 치르고 동문들과 더불어 유고를 정리하여 문집을 발행하였다. 1827년(순조27)에 돌아가셨다. 문집으로 『晦堂集』이 있다. 철종(哲宗)11년(1860년)에 사람들이 도북사에 배향했다(士林配享道北祠) 순종조(純宗朝)에 통훈대부규장각직각(通訓大夫奎章閣直閣)에 증직(贈職)되었다.

* 참고문헌 晦堂集/北關：四賢行蹟

족보 기록을 보면,

“구암이선생고제리농송지여운찬경구지적전여오노주홍매산변성리위도의교김상서리양거경행제지릉참봉금상국리교중명망욕부천발덕행문장독실연박홍매산림둔오칭위북유고문지창(龜巖李先生高弟理農松之餘韻續敬龜之嫡傳與吳老洲洪梅山辨性理爲道義交金尙書履陽舉經行除智陵叅奉金相國履喬重名望欲復薦拔德行文章篤實淵博洪梅山林屯塢稱謂北儒古文之倡)”

풀이해보면,

구암 이선생의 우수한 제자로 농사와 소나무 가꾸는 여유를 즐겼다.

경구의 적통(?)을 지어 오노주, 홍매산에게 전해주었다. 성리학을 밝힘을 도의로 삼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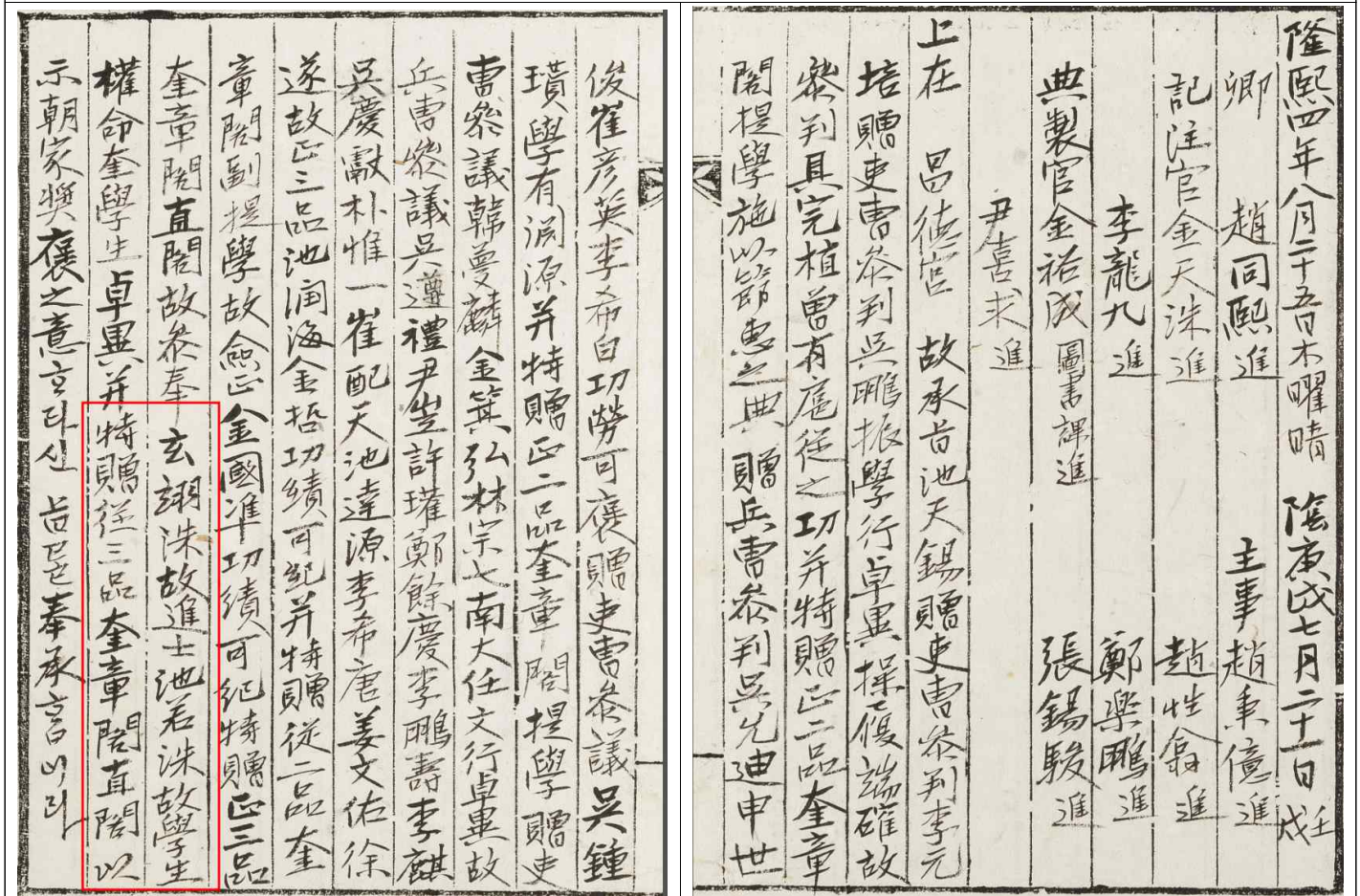
판서 김이양과 교제하였다. 경학에 밝고 행실이 착함으로 인해 지릉참봉을 제수받았다. 김이교 상국(영의정, 좌의정)이 명망을 중시하여 다시 발탁하여 천거하고자 했다. 덕행과 문장이 독실하고 아는 것이 넓고 깊었다. 홍매산, 임둔오가 칭하기를 북쪽 유학 고문의 광대라고 했다.

* 구암이선생(龜巖李先生)은 이원배(1745~1802), 오노주(吳老洲)는 순조때 학자 오희상, 홍매산(洪梅山)은 홍직필, 임둔오(林屯塢)는 홍매산과 같은 시대 사람으로 보임

일성록 > 순조 > 순조 13년 계유 > 12월 11일 > 최종정보 순조 13년 계유(1813) 12월 11일(갑진)^{13-12-11[11]} 이비(吏批)가 올린 세초 단자(歲抄單子)에 점을 찍어 내렸다. ○ 이비가 올린 세초 단자에 점을 찍어 내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삭직(削職)한 부류] 전 목사 김용순(金龍淳), 암행 어사 이서(李埏)는 모두 직첩(職牒)을 돌려준다. [파직한 부류] 전 부윤(府尹) 신서(申淑),(중략) 참봉(參奉) 현익수(玄翊洙)는 모두 서용(敍用)한다.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한 부류] 전 목사 조응현(趙應鉉), 부사 이윤덕(李允德),(중략) 은 모두 1등을 감한다. [직첩을 돌려준 부류] 전 헌감 홍경두(洪景斗)・서유수(徐孺修)는 모두 서용한다. ○ 전교하기를, "이비가 올린 세초 단자에 점을 찍어 내린 자들에 대해서는 규례대로 전지(傳旨)를 봉입하라." 하였다.

고 승지 지천석 등에게 추증하였다

○ 고 승지 지천석, 증 병조 참판 이원배·오봉진, 고 참판 구완식, 증 병조 참판 오윤적·신세준·최언영·이희백, 증 이조 참의 오종찬에게 특별히 정2품 자헌 대부 규장각 제학을 추증하였고, 증 이조 참의 한몽린·김기홍·임종칠·남대임, 고 병조 참의 오준례·윤립·허관·정여경·이봉수·이기·오경현·박유일·최배천·지달원·이희당·강문우·서수, 고 정3품 지윤해·김철에게 특별히 종2품 가선 대부 규장각 부제학을 추증하였으며, 고 첨정 김국준에게 특별히 정3품 통정 대부 규장각 직각을 추증하였고, 고 참봉 현익수, 고 진사 지약수, 고 학생 권명규에게 특별히 종3품 통훈 대부 규장각 직각을 추증하였으며, 증 지평 성헌징, 고 대군 사부 한협, 고 대사헌 박성양, 고 지평 유종교, 고 부사 민진강, 고 교리 원숙강에게 특별히 정2품 자헌 대부 규장각 제학을 추증하였고, 고 정3품 안동준에게 특별히 종2품 가선 대부 규장각 부제학을 추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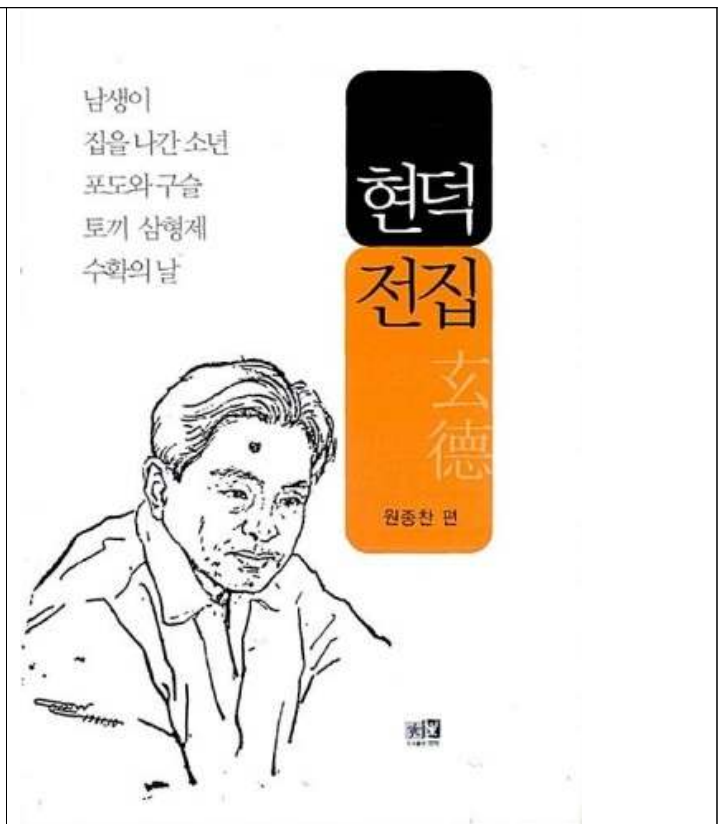


필기 必祺, 29세, 1793년생

족보에 '필구보오작필(必舊譜誤作弼)'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구 족보에서 도울 필(弼)자로 잘못 적은 게 분명하다. 자는 길재(吉哉)이다.

덕 德, 29세.

소설가, 아동문학가, 1909년 서울 출생. 경성제일고보에 입학했다가 중퇴하였다.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에 참여하여 아동문학부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한때 조선문학가동맹 출판부장을 맡기도 했다. 조선문학가동맹의 이념노선은 조선공산당의 문화운동 노선에 따라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현덕의 월북은 이념에 따라 실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 연도는 알수 없다. 1938년『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남생이」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경칩」(조선일보, 1938)·「층(層)」(조선일보, 1938)·「두꺼비가 먹은 돈」(조광, 1938)·「골목」(조광, 1939)·「잣을 까는 집」(여성, 1939)·「녹성좌」(조선일보, 1939)·「군맹」(매일신보, 1940) 등의 단편소설이 있다. 단편소설과 함께 아동소설도 여러 편 발표하였다. 1938년『소년』에 「하늘은 맑건만」·「권구시합(拳球試合)」, 1939년 같은 잡지에 「고구마」·「강아지」·「두포전」·「집을 나간 소년」·「잃었던 우정」을 발표하였다.





칠종 七鍾, 29세. 북한정치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戰線) 중앙위원회 위원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1898년(고종 35) 함경북도 성진군에서 출생하였다. 3·1운동에 참여하였다. 1923년
사상단체인 토요회에 참가하여 간부가 되었다. 그 해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
하여 1926년 6월에 졸업하였다. 같은 해 10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에 입당하였다.

1927년 1월 전만(全滿) 당열성자대회에 참석하였고, 5월 조선공산당 동만(東滿)구역국 선전
부장이 되었다. 7월 용정(龍井)에서 동만교육자강습회를 조직하고 당과 공산청년동맹의 정책
을 강의하였다. 같은 해 10월 제1차 간도공산당 검거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
으며, 1928년 12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32년 8월 서대문형무소에서 만기 출옥하였다. 1933년 8월 청진에서 함경북도 각지의 공
산주의자들과 함께 함경북도 노동자농민(勞農)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1934년 6월 청진에
서 함북공산주의자동맹 결성을 주도하였고, 동맹 산하에 4개 지방위원회를 두고 노동자·농
민운동의 활성화에 힘썼다.

11월 함북공산주의자동맹 검거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검거되었다가 1945년 8월 춘천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광복 전에 항일유격대 대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194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열성자대회에 참석하여 남조선노동당의 거두로, 북한에서 1955년 12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처형된 박헌영(朴憲永) 중심의 조선공산당 재건을 지지하였다. 1946년 1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산하 북조선농민동맹이 결성될 때 부위원장 겸 평남지역을 대표하는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3월 북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1951년 2월 조선농민동맹 부위원장을 거쳤다.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같은 해 5월 조선농민은행 총재에 임명되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대남전위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戰線) 중앙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1957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에 선출되었고, 1957년 9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1958년 6월 ‘노력훈장’을 받기도 하였으나 같은 해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되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1959년 12월 박헌영과 사돈간이라는 이유로 종파에 연루되어 농목장으로 추방되었다.



‘제1차 간도공산당 사건’(1927.10.)으로 체포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간부들. 조직부장 최원택(앞줄 오른쪽), 동만구역국 책임비서 안기성(앞줄 중앙), 동만 선전부장 현칠종(앞줄 왼쪽), 위원 이주화(뒷줄 좌), 김지종(뒷줄 우) (사진=길림신문)

간도공산당 사건 재판 소식(동아일보, 1928.11.25.)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준극 峻極, 31세, 북한 외교관, 언론인,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외교관. 1924년 함경북도 길주군 남양리에서 화전민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국내와 중국에서 출생년도, 출생지, 한자 이름 등이 각각 1922년, 함남 단천, 玄俊極 등 잘못된 정보로 알려져 있다.

1930년 함경북도 길주군 웅평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39년부터 서울 경성중등학교와 경신중학교를 다녔다. 1950년 5월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는다.

1945년 11월에는 공청 길주군 웅평면위원회 조직부장으로, 1946년 3월부터는 노동신문 함경북도 특파기자, 당생활부 기자로 활동하였다. 6.25전쟁 기간 중에는 대구와 안동 방면에서 종군기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노동신문사 편집원, 편집국장 등을 거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역임하였고, 1966년 10월부터 1977년까지 제7대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직을 수행하였다.

1972년 8월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1979년 6월에는 위원으로 승격)이 되었다. 1972년에는 최고인민위원회 제5기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1977년 제6기 대의원으로 재선출되었고, 같은 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1986년에는 국제부 부장이 되었다.

1977년 5월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대외문화연락협의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대일관련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다. 같은 달 일조의원연맹의 초청을 받고, ‘공화국 대의원그룹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1976년 12월 만료된 「조일민간 무역협정」 및 「조일민간어업협정」의 연장을 목적으로 파견되었다. 1982년 조일의원연맹은 현준극을 다시 한 번 초청하였지만, 일본 정부의 거부로 입국하지 못하였다. 1992년 6월 노동신문사 대표단 단장자격으로 다시 한번 일본을 방문하였다. 1994년에는 당 대표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였고, 1996년에는 제15차 그리스 공산당 대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1980년부터 대남사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1980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 9차와 10차 회의를 제외한 여덟 차례의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곧이어 10월에 열린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에서도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1989년 10월(1988년 12월부터라는 설도 있음)부터 노동신문사 책임주필에 취임하면서, 조

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1960년부터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1990년 제9기 대의원으로 다시 선임되었다(5기~9기 대의원).

1994년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 자리에 올랐고, 같은 해 7월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1997년 2월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의 망명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해 8월 대장암으로 사망하였다.

1972년과 1982년 김일성훈장을 받았으며, 사망 후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묻혔다.



판문점에서 현준극 (출처 e역사영상관)



김영주외무본부대사와 현준극 부부장
(출처 e역사영상관)



1980년 2월 6일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우리 측 김영주 외무부 본부대사(오른쪽)와 북측 현준극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겸 정무원 참가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참고문헌

『일본의 대북정책(1945-1992)』(신정화, 오름, 2004)/『북한의 주요인물 2004』(통일부, 2004)/『조선대백과사전』24(백과사전출판사 편, 백과사전출판사, 2001)

용택 龍澤, 32세.

1912년임자(壬子)생, 김일성 부대의 빨치산으로 김정숙이 있던 중대의 정치지도원으로 활동하다가 1938년 임강현(臨江縣)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철규 哲奎, 33세.

용택의 장남, 1932년임신(壬申)생, 함경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성일 成日, 34세.

철규의 아들, 1959년생, 김일성종합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하고 주 잠비아 북한대사관의 3등 서기관으로 일하다가 1996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였다. 이후 199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서 북한학 전공으로 외교안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6년에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북한 연구자로 활동하였다.

철해 哲海, 34세.

용택의 차남, 1934년갑술(甲戌)생, 북한의 군인, 정치인이다.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자 김정은의 정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선인민군 원수,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조선인민군 후방총국장, 조선로동당 6기 정치국 위원, 조선로동당 7기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로동당 6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 2022년 돌아가셨다. 영결식 때 김정은과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직접 관을 메고, 김정은이 직접 맨손으로 흙을 떠서 무덤에 덮어주기까지 하는 파격적 대우를 해줬다. 부인 최금련(崔今蓮)과의 사이에 외아들 현성준(玄成俊, 1965~)을 낳았다. 현성준에게 딸 현효정이 있는데 강반석혁명학원을 61기로 졸업하고 2022년 10월, 만경대혁명학원 및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련환행사에 나와서 할아버지에 대한 칭송을 했다.



김정일 현지지도 수행 횟수 상위 인물 (2004~2008년)



현철해
75인민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
207회



이명수
가 국방위원회
행정국장
192회



박재경
65인민무력부
부부장
142회



김기남
82당중앙위원회
비서
11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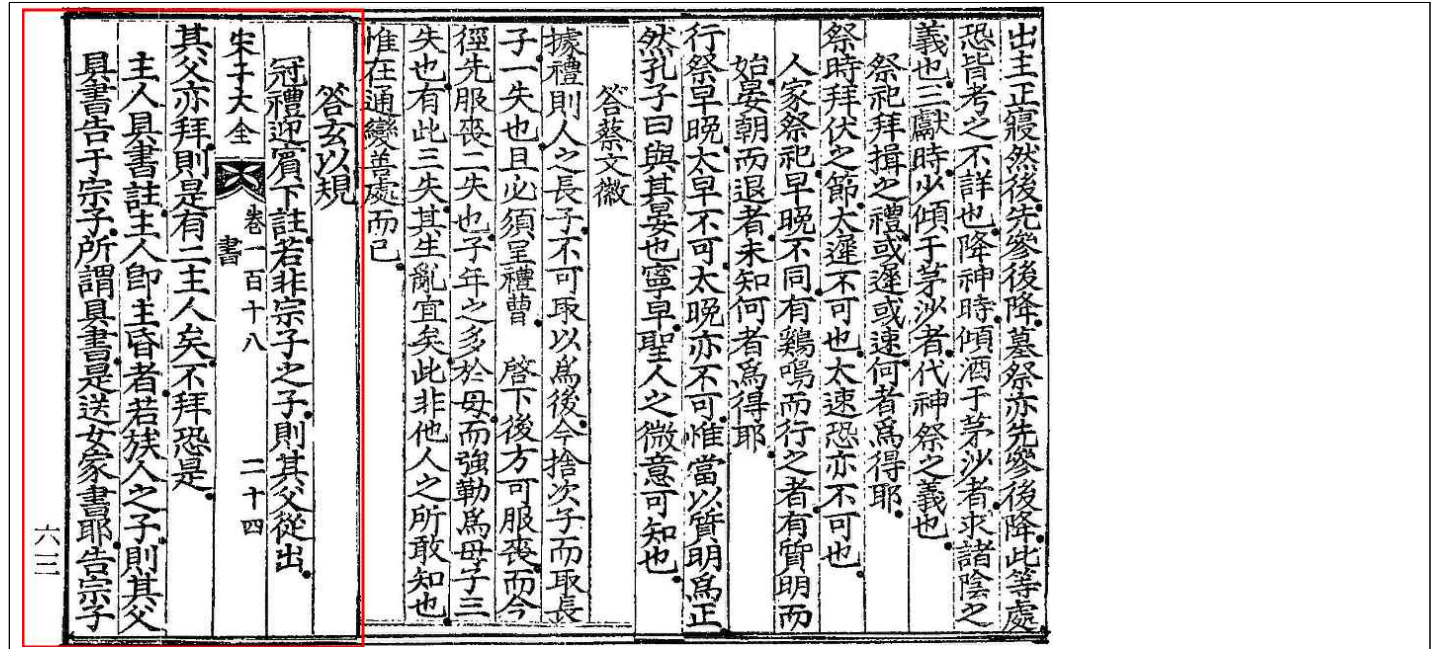


이용협
80당조직지도부
재무부장
87회



이규 以規, 22세. 성리학자, 백암(白菴)선생

조선조 성리학자이다. 호는 백암(白菴)이다. 1641년(인조 19년)에 태어나 1706년에 66세로 돌아가신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학행(學行)이 뛰어나 관북(關北) 지방에서 유명하였다는 화양연원록《華陽淵源錄》의 기록이 있다. 예학(禮學)을 전공(專攻)하여 우암(尤庵) 송시열과 문답(問答)한 글이 수집장 전한다. 문집 「白庵集」이 있다.



송자대전(宋子大全) :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송시열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87년에 간행한 시문집.

관례(冠禮)의 ‘빈을 맞는다.[迎賓]’아래 주에 ‘만약 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따라 나온다.[若非宗子之子則其父從出]’이라고 한 데 대하여. 그의 아버지도 절을 한다면 이는 주인이 두 사람인 셈이니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하네. ‘주인구서(主人具書)’의 주에 ‘주인이라곤 곧 혼사를 주관하는 자이다. 만약 족인(族人) 같은 종문(宗門)이면서 유복친(有服親)이 아닌 겨레붙이의 아들일 때는 그의 아버지가 구서(具書 형식을 갖춘 편지. 곧 혼서(昏書))를 가지고 종자에게 고한다.’ 하였는데, 이른바 구서는 여가(女家)에 보내는 글입니까, 종자에게 고하는 글입니까? 여가에 보내는 글이라면 여가에서 사자(使者)를 맞이하는 일도 종자가 주관할 것인데 글을 받고 재배(再拜)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행합니까? 그 아래 조항에 ‘받들어서 사당에 고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사자에게 주기 위한 글임을 알 수 있네. 여가에서 글을 받고 절하는 일 또한 종자가 행하는 것이네. 혼례의 도식(圖式)에, 주인이 나와서 사위를 맞고 서로 향하여 재배하는 법이 있고, 《예기》 관의편(冠義篇)에 또 ‘주인이 사당 안에 자리와 탁상을 마련한 뒤 나와서 사자를 사당 문밖에서 맞는다.’ 하였는데, 《가례》 본 조항에서는 음양(揖讓)하고 들어간다고만 말하고 재배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례》는 고금을 참작하고 문질(文質)을 적절하게 갖춘 책이니 마땅히 《가례》가 옳다고 보아야 하네. 주(周) 나라는 야반(夜半 밤중)을 다음날로 보고, 상(商) 나라는 닭이 울 때를 다음날로 보았고, 음양가(陰陽家)는 다 자시(子時)로써 다음날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닭이 울기 전 자시에 죽은 사람은 어느 날을 따라야 합니까?

일분(日分)은 반드시 해시에서 끝나고 자시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초이틀의 자는 자연 초하루와 상관이 없네. 예문(禮文)에 남의 후사가 된 자는 본생(本生)의 외조부모(外祖父母)를 위하여 시마를 입는다고만 말하였고, 외삼촌과 종모(從母 이모)의 복을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입후(立後)된 어머니의 형제자매에게 소공복을 입어야 한다면 본친(本親)의 양이형

제(兩姨兄弟 이모의 아들, 종형제)와 내외 종형제는 등급을 낮추어 복이 없습니까? 《가례》의 성복조(成服條)에 분명히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사친(私親)을 위하여 다 한 등을 낮춘다고 하였네. 이로 보면 사친의 이성(異姓) 친척에 대한 시마복만이 아니라 동종(同宗)의 시마복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낮추어 복이 없는 것이네. 복제(服制)의 시마조와 도식에, 종모의 자식은 양이형제자매(兩姨兄弟姊妹)를 말한다고 하고 외삼촌의 자식과 고모의 자식에 대해서는 내형제·외형제라고만 말하고 자매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외종의 자매는 복이 없습니까? 《가례》에 이미 ‘종모형제자매’ 밑에, ‘종모의 아들이다.[從母之子也]’는 다섯 자로 해석하였으니 그 아래의 ‘외삼촌의 자식과 고모의 자식’이란 글도 당연히 형제자매를 아울러 들어서 말한 것이네. 외삼촌과 고모의 자식에는 형제만을 말하고 자매를 말하지 않은 것은 문장을 생략한 것이네. 외친(外親 외가의 겨레붙이)의 상사(殤死)에도 강복(降服)을 해야 합니까? 상사(殤喪)의 복은 비록 동종이더라도 다 낮추는 것인데 더구나 외친이겠는가. 세상에 외친은 낮추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데 그런 예가 어느 책에 있는지 모르겠네. 장자(長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은 자는 출입할 때 어떤 복을 입어야 하며, 서자(庶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는데 복을 벗기 전에 출입할 때는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아내와 조부모의 상중에 출입하는 복도 경중의 구별이 있습니까? 이런 제도는 예서(禮書)에 명문(明文)이 없으므로 감히 확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네. 일반적으로 예를 아는 사람을 보면 장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 도중 출입할 때는 거친 생포(生布)로 지은 옷에다 베로 쓴 갓(布裹笠)을 쓰고 삼으로 꼬아서[絞麻] 띠를 하였네. 아내의 상중에도 그러한데 띠만은 베로 하였네. 서자로서 승중한 자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시마복을 입는 경우에는 그 복이 매우 경(輕)하지만, 예서에서 이미 심상 삼년을 허용하였으니 다른 시마친(總麻親)과는 차이가 있네. 그 거처와 음식을 한결같이 여러 형제에 대한 경우와 다름이 없이 하는 것으로 보면 출입할 때에 입는 것도 다른 시마친과는 달라야 할 것이네. 일찍이 거친 베로 옷을 지어 입고 폐양자(蔽陽子)를 쓴 경우를 보았는데 예에 꼭 합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적절한 듯하였네. 예서에 ‘승중(承重 아버지가 죽은 뒤 조부모의 상사에 아버지 대신 상제가 됨)한 아들이 체(體)이면서 정(正)이 아니면 아버지는 삼년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장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죽었거나 혹은 태어난 지 한두 살에 죽어서 차자가 승중한 경우에도 또한 정(正)이 아닌 것으로 논하여 삼년복을 입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오늘날 일대 죄안(罪案)으로 대두된 문제이니 어찌 감히 다시 입을 놀릴 것인가. 그러나 《의례》의 위장자(爲長子)의 소(疏)에, 장자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반드시 제1자가 죽었다고 운운(云云)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네. 장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 자와 아내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자가 관리로서 먼 곳에 있을 경우, 그 아들이 집 안에 있으면서 각각 그 상을 주관하고 신주를 쓸 때는 아버지와 남편으로 써야 합니까? 혹은 늙고 병들어 제사를 주관할 수 없을 때는 그 아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그 이름으로 신주를 써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상사에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상주가 되는 것이니,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든 늙어 병이 들었든 간에 당연히 아버지가 상주가 되고 아들이 섭행(攝行)해야 할 것이네. 다만 나이가 70이 되어 늙어서 전가(傳家)를 한 다음에 아들이 상주가 될 수 있는 것이네. 그러나 나이 70이 되어 늙어서 전가한다는 설 또한 오늘날의 일대 죄안이 되어 있으니 감히 공공연히 말할 수 없을 듯하네. 《예기》 잡기 상(雜記上)에 ‘아

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상장(喪杖)을 짚을 때에는 장자의 아들은 상장을 짚고서 자기의 위치에
 나아가지 않는다.’ 하였고, 또 ‘서자(庶子)는 상장을 짚고 자기의 위치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
 였으니 이는 적자(嫡子)를 피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를 위하
 여 상장을 짚는 자도 상장을 짚고 제 위치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 위 두 조항으로 헤
 아려 보면 어머니를 위하여 상장을 짚는 자도 마땅히 아버지를 피해 줘야 할 것인데 명문(明
 文)이 없으니 감히 확정 지어 말할 수 없네. 시집가지 않은 딸의 명정(銘旌)과 신주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시집가지 않은 딸의 명정은 세속에서 다 모씨(某氏)라고 쓰는데, 신주도 마찬가
 지이네. 그러나 신주 분면(粉面)에 망자(亡子 죽은 아들)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 보면 딸도 당
 연히 이름을 써야 할 듯하네만, 우리나라의 풍속은 여자의 이름을 몹시 꺼리기 때문에 갑자기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네. 연·상(練祥 소상과 대상)을 행하려고 할 때 장자가 병이 들어 제
 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종자(衆子)들은 마땅히 제전(祭奠)을 베풀어 탈복만을 하고 장자의
 병이 나은 뒤에 날을 잡아 제사를 행해야 합니까?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네. 부모가 살아 있
 는 자는 아내를 위해 담제(禫祭)를 행하지 않는 것이니 그 아들도 이로 인하여 담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아내를 위해 상장을 짚지 않고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옛날 그런 예가 있었네. 그러나 《가례》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건 죽었건 간에 다 같이 상장
 을 짚고 기년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상장을 짚는다면 담제를 행하는 것이네. 오늘날
 예를 행하는 자가 만약 한결같이 《가례》를 따른다면 이런 의심은 없을 것이네. 전·후실(前
 後室)을 아울러 부제(祔祭)하는 것은 이미 주자의 정론(定論)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주를 독
 (櫝 신주 상자)에 합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문이 없습니다. 한 개의 독 속에 다 아울러 붙이
 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취(首娶 첫 아내)만을 합하고 그 나머지는 각기 다른 독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마공(司馬公 사마광)이 말하기를, “부군(府君)과 부인(夫人)은 한 개의 독을 같이
 사용한다.” 하였고, 주자가 말하기를, “부부는 함께 사당에 들어가는 것이니 곧 사마씨의 법처
 럼 한다. ……” 하였으며, 재취(再娶)에 대하여 논하면서 ‘다 아울러 붙여야 한다.’고 하였으
 니, 한 개의 독에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의심할 것 없네. 향렬이 높은 사람이 낮고 어린 사람
 에게 제사를 지낼 때 친히 스스로 강신(降神)과 짐주(斟酒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것)와 제주(祭
 酒 제사에 술을 따르는 것)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듯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서에 의하면 낮고 어린 사람은 마땅히 부위(祔位 할아버지의 신주에 붙이는 것)가 될 것이
 네. 부위에 제사하는 법은 그에 따른 《가례》의 글이 있네. 단궁(檀弓 《예기》의 편명)에
 ‘선인(先人)의 집이 불타면 3일 동안 곡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사당에 불이 났더라도 신주는
 다행히 받들어 내왔다면 3일 동안 곡하는 예가 없는 것입니까? 또 《통전(通典)》에 이르거
 를, “무덤이 도적에게 발굴을 당하였으면 비록 관(棺)에까지는 미치지 않았더라도 신궁(新宮
 사당의 별칭)이 불탄 예에 의하여 3일 동안 곡한다.” 하였습니니다. 만약 무덤에 불이 났다면
 어떠한 예로 조치해야 합니까?

무덤을 사당에 비교한다면 무덤이 불타거나 또는 침범을 당하였는데 관에까지 미치지 않은 경
 우와 사당이 불탄 경우가 같은 유가 되고, 침범을 당하여 관에까지 미친 경우와 사당에 불이
 나 신주까지 타 버린 경우가 같은 유가 되네. 다만, 무덤에 관이 드러났을 때는 시마복을 입
 고 3개월 동안 곡림(哭臨 무덤에 가서 곡하는 것)한다 하였고, 신궁이 불탔을 때는 3일 동안

곡한다고 했을 뿐 시마를 입는다는 글이 없네. 이른바 신궁이 불탔다는 것은 신주까지 불탔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당만 불탔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명문(明文)을 보지 못했으므로 감히 확정하여 말하지 못하겠네. 세상에는 혹 외손(外孫)이 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복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같은 족속일 때는 비록 은의(恩義)가 있더라도 복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니 자기에게 해당되는 복만을 입고 심상 3년을 해야 옳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에게 처첩이 있다면 그 궤연(几筵)을 3년 안에는 거두지 않는 것입니까? 상사(喪事)에는 후사가 없는 일은 있어도 상주가 없는 일은 없는 것으로 이웃집이나 이윤(里尹 이장(里長))이 주관하기 까지도 하니 외손이 상주가 되는 것이 뭐가 의심스럽겠는가. 다만, 본종(本宗)에 주관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는 외손이 주관할 수 없는 것이네. ‘남의 상사를 주관하는데 삼년복을 입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재제(再祭 대·소상(大小祥)을 말함)를 지낸다.’고 한 것은 대공(大功 9개월에 해당하는 복, 죽은 자의 종부(從父)나 형제)를 위주로 말한 것인데 이것은 연상(練祥 대·소상)만을 주관하고 담제(禫祭)는 주관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중 중(重)한 것을 들어 담제까지 포함하여 말한 것인지 알 수 없네. 그러나 연상을 말하였으니 3년 안에는 궤연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 그리고 예서에, 친구가 남의 상사를 주관할 때는 우제(虞祭 초우(初虞)·재우(再虞)·삼우(三虞)의 총칭)·부제(祔祭 삼년상을 마친 뒤 그 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만 지낼 따름이라고 하였네. 지금 외손의 복은 친구보다는 중(重)하지만 대공보다는 경(輕)하니 우제·부제만을 지낸다는 글을 따라야 옳을지 재제를 지낸다는 글을 따라야 옳을지 이 또한 감히 억측으로 결정하지 못하겠네.

[주-D001] 현이규(玄以規):

송시열의 문인. 호는 백암(白菴). 학행(學行)이 뛰어나 관북(關北) 지방에서 유명하였다. 《華陽淵源錄》

[주-D002] 빈을 맞는다:

《가례(家禮)》 권2 관례(冠禮)에 ‘빈이 도착하면 주인이 맞아들여 당(堂)에 오른다.[賓至主人迎入升堂]’라고 한 것을 말한다.

[주-D003] 주인구서(主人具書):

《가례(家禮)》 권2 혼례(昏禮)에 나온다.

[주-D004] 상상(殤喪):

요사(夭死). 16세부터 19세 이내에 죽는 것을 장상(長殤), 12세부터 15세 이내를 중상(中殤), 8세부터 12세 이내를 하상(下殤)이라 한다.

도암(陶菴) 이재(李穡)의 도암집(陶菴集)에 처사 현공 행장(處士 玄公 行狀)이 전한다.

* 이재(李穡, 1680~1746) :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서예가. 호는 도암(陶菴), 시호는 문정(文正). 병조좌랑(兵曹佐郎) · 정언(正言) · 이조좌랑 · 수원부사를 거쳐 1714년에 대사성에 이르렀고, 1725년에는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을, 1738년에는 대사헌까지 올랐다. 그러나 제수받은 관직 대부분을 사양하고 사직과 물러나기를 반복했다. 당대의 젊은 문사들이 문하에 모여들어 문도(門徒)를 형성했는데,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노론계 문인들 대부분이 이재의 문하를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직한 성품을 바탕으로 타협보다는 정론을 고수하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다. 정묘보 편수 당시 시조(始祖)와 본관(本貫)의 통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학자 중 한명.

疏以陳尊攘之義。不果上。嗚呼。豈易與俗人道哉。平生篤信小學近思錄。歸宿於心經。又用力於大學家禮。如誦己言。祭禮以要訣爲主。喪制以備要爲斷。人或不用帶下尺。公曰。家禮雖無之。備要既採錄。則用之何疑。其歿。門人以備要治喪。從治命也。公不喜記述。晚著師生授錄一卷。辭氣平淡。義理蘊藉。真有德之言也。配慶州李氏文翼之女。先公庚辰卒。一男一女。男爾典。女適宋善吉。爾志及金一庸。洪致叙妻側出也。爾典男無違。女婿崔與聖。申義夏。宋婿二男鎮泰。鎮岱也。綽識昧學淺。而猶及見公老年。古人所謂真實心地。刻苦工夫者。蓋公一人耳。且近世師生之倫。墜地久矣。公乃血誠服勤於死生危迫之際。南竄北謫。流離顛沛。雖九死而無所悔。是則往牒之所不見。生三事一之義。至公而始大明矣。有裨於世道。爲如何哉。茲敢撮其言行。以俟立言君子之財擇焉。

處士玄公行狀

公諱以規。字自強。號白菴。其先出廣州高麗星山府院君德秀始祖也。入本朝。參判用富錄。開國功。其曾孫仲滿坐豪右。流明川。後五世徙于吉州。子孫遂爲吉州人。祖諱演。考諱太虛。妣陽川許氏。吉城君惟禮

陶菴先生集

卷五十

行狀

十三

之後。父曰應魯。公幼而嶷然有巨人氣度。及長。聰明絕倫。淹穿經史。年十八。讀尚書之書。三百璣衡註。默契其理。患初學難曉。別爲補註。以發其奧。又削竹作渾天之制。晷刻節候。無毫髮差者。如醫藥卜筮算數之書。亦皆旁通。而不屑爲也。其事父母。常愉色婉容。務悅其心。父母或怒他人。輒屏氣起敬。俟怒弛而後始敢舒顏。老婢僕有過。以父母所使不敢罪。子弟有失。亦必溫言誨諭。或語及人長短得失。則必痛禁之。仲嘗遭癘。有子在傍。公猶親執藥不去。從姊患疽。往救之。疾瘳乃歸。其功之喪。食素不飲酒。以終其月。內

陶菴先生集

卷五十

行狀

十四

行之美如此。早專意禮學。以書質於二宋先生。凡累十條。尤菴之謫德源也。晉謁而叩其疑。又退而記其答問。自是廢舉杜門讀書。沉潛義理。於近思錄得力最深。家甚貧。終身無戚戚容。篤志爲己。不求人知。言行相顧。動靜有度。尤嚴於在色之戒。飲酒終日。無失儀。常以念思難三字爲處身之要。又嘗語學者曰。穩忿室慾。可以存心養性。然要當以一箇敬爲主。徐相國宗泰奉命至州。聞其名。請見。辭以疾不往。御史薦聞于朝。不果用。丙戌十一月七日卒。年六十六。翼年三月葬於本州刀山良向之原。州人咸驚嗟相告。

백암선생행장(白庵先生行狀) (요약)

호(號)는 백암(白庵)이다. 13세(世) 중만(仲萬)이 명천(明川)에서 살다가 6대 후손인 구정공(19세)이 다시 길주(吉州)로 이거(移居)하였다. 공은 어릴 때부터 거인의 기품이 있고 자라며 총명하기가 뛰어나서 십팔세에 서전(書傳)의 기삼백{碁三百; 서전의 편(篇)이름}과 기형편(琦衡篇)을 읽어 그 이치를 능통하여 별도로 그 책의 해석하기 어려움을 알기 쉽게 주해(註解)하여 초학자(初學者)라도 해득하기 쉽게 하였으며 또한 대나무를 깎아서 천기(天氣)를 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시간과 절후(節候)가 착오없이 맞도록 연구하셨으며 의약(卜筮) 산수(算數)에 대한 글을 저술하여 세상에 널리 보급하셨으나 행술(行術)은 하지 아니하셨다. (중략)

일찍 예학(禮學)을 전공하여 글로 이송(二宋; 宋우암, 宋동춘)선생에게 질의한 것이 수십장이나 되고 우암(尤庵)께서 덕원(德源)으로 귀양 갔을 적에 찾아가 의문나는 것을 묻고 돌아와 문답한 것을 기록하셨다. 이후도 과거볼 것을 단념하고 두문불출하고 글을 읽으며 의리를 탐구하고 근사록(近思錄)(송(宋)나라때 주자(朱子)가 저술(著述)한 성리학(性理學) 책자에 더욱 정심(精深)하고 집이 가난하되 구차한 모양을 보이지 않으셨으며 뜻을 도탑게 하시어 몸을 위하고 언행이 일치하며 동정(動靜)에 법도를 지켜 더욱 주색(酒色)을 엄계(嚴戒)하고 항상 분(忿) 사(思) 난(難) 삼자(三字)를 생각하면서 처신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또한 학자를 가르치시되 분(忿)한 것을 징계하고 지나친 욕심을 막으면 가히 심성을 수양하는 것이니 마땅히 공경하는 것을 주장한다고 하셨다.

서상국(徐相國; 나라의 정승) 종태(宗泰)가 본군(本郡)에 왔다가 공의 명성을 듣고 뵈옵기를 청하니 병들었다고 하여 가지 않으시고 또 어사(御史)가 조정에 천거하였어도 나가시지 않으셨다. 1706년 병술(丙戌)년에 사망하시니 향년 66세였다. 이듬해 3월에 본군 도산 간좌산록(本郡刀山艮坐山麓)에 장례하였다. 이 때에 고을 사람들이 다 경탄하여 말하기를 어질고 덕이 있는 선비가 돌아가셨다 하고 쌀이며 석탄(石炭)을 몇 섬씩 부의(賻儀)하였다. 양천허씨(陽川許氏)에 장가들어 2남 3녀를 두었다. 장남은 익장(益章), 차남은 득장(得章)이요, 장녀는 김필중(金必重) 차녀는 최만중(崔萬重) 삼녀는 허업(許業)과 혼인했다.(하략)

삼주(三州) 陶菴(도암) 李緯(이재)가 쓰다.

46. 白庵先生行狀

公諱以規字自強號白庵玄氏系延州高麗門下侍郎平章事諱章胤卽始祖也入 太祖朝判尹諱用富錄開國功臣其六代孫諱仲萬坐豪右流明川後六世徙于吉州子孫因居焉祖諱演考諱太虛公幼而嶷然有巨人氣度及長聰明絕倫淹穿經史年十八讀尚書之菴三百璣衡註默契其理患初學難曉別爲補註以發其奧又削竹作渾天之制晷刻節候無毫髮差者如醫藥卜筮算數之書亦皆旁通而不屑爲也其事父母常愉色婉容務悅其心父母或怒他人輒屏氣起敬俟怒弛而後始敢舒顏色婢僕有過以父母所使不敢罪子弟有失亦必溫言誨喻或語及人長短得失則必痛禁之仲兄嘗遘癘有子在傍公猶親執藥不去從娣患疽往救之疾瘳乃歸期功之喪食素不飲酒以終其月內行之美如此早專意禮學以書質於二宋先生凡累十條尤庵之謫德源也晉謁而叩其疑

又退而記其答問自是廢舉杜門讀書沉潛於義理於近思錄得力最深家甚貧終身無戚戚容篤志爲己不求人知言行相顧動靜有度尤嚴於在色之戒飲酒終日無失儀常以忿思難三字爲處身之要又嘗語學者曰懲忿窒欲可以存心養性然當以一箇敬爲主徐相國宗泰奉 命至州聞其名請見辭以疾不往御史薦聞于 朝不果用而丙戌十一月七日卒年六十六翌年三月葬于本州刀山艮向之原州人咸驚嗟相告曰賢士亡矣各出米幾石石灰幾石賻之娶陽川許氏育二男三女男益章得章女金泌崔萬重許業也公起於遐陬倡明禮學冠婚喪祭一遵古禮遠近人士以爲模範蓋北方豪傑之士惜乎其沉淪不見用於世也記余少時以評事之北歿已數載矣恨不及見之李君瑛以其門人呂尙賢之言來請狀德之文余旣慕公德又嘉呂生之志就所示行錄叙其大略以歸之後之君子或有以考焉

三州 李緯 狀

원국 垣國 27세.

목사. 1887년(고종高宗24)생 1937년졸, 일본국서학원대학졸업

영학 永學 28세. 민중신학자, 이대문리대학장. 한국의 교육자,

원국의 장남, 기독교 사회운동가, 민중 신학자, 민속학자로 반유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이화여자대학교신학과 교수와 문리대학장을 지냈다. 니버, D. 본회퍼 등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를 국내에 소개하였고 안병무, 서남동 등과 함께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개척하였으며, 군정과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반유신, 박정희, 전두환 반대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1980년대부터 죽을 때까지 탈춤 연구에 헌신했다. 흥남 철수의 영웅 헌봉학과 해군 창설의 주역 현시학의 형이다. 계몽운동가, 교육자인 윤치호의 사위이며 4대 대통령 윤보선의 6촌 매제이다.

1921년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목사 현원국과 독립운동가 겸 교육자이자 대한애국부인회의 회원인 신애균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이화여전의 음악과 교수로 있던 윤치호(尹致昊)의 여섯째 딸 윤보희(尹寶姬)와 결혼했다.

1938년 함흥 영생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일본으로 유학, 간사이학원(關西學院, 지금의 간사이가쿠인대학) 신학부에 입학하였다. 이후 목사 자격을 취득하고 1943년 일본의 한국인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다가 태평양전쟁 당시 징용 대상자가 되어 서울로 돌아와 철광회사에서 일하였다.

8·15광복 뒤에 철광회사를 그만두고 이화여전의 강사로 임용, 1945년 해방 정국에서 현시학등 가족들을 이끌고 월남했다. 1946년 이화여자전문학교(뒤에 이화여자대학교로 승격)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화여전의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1947년 미국 유학, 성서신학교(Biblical Seminary)에서 공부하였고, 1949년 뉴욕 유니언신학교에서 R.니버(Reinhold Niebuhr)의 가르침을 받았다. 1955년 미국 뉴욕의 유니언 신학대(STM)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55년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이화여자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복귀하였고 이후 이화여자대학교문리과대학 기독교학과장, 문리대 교양학부장, 학무처장 등을 지냈다. 이후 박정희의 군정 연장에 반대하였고, 1964년 연구원 자격으로 미국 유니언신학교로 가 최신 신학을 공부하였다. 신학자로 활동하며 니버, D.본회퍼 등의 신학자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그들의 저서를 번역하여 국내에 출간하였으며 A.리처드슨의 《과학 역사 신앙》(1958), S.케이브의 《신약

성서와 윤리문제》(1959), P.틸리히의 《존재에의 용기》(1960) 등의 신학서를 번역, 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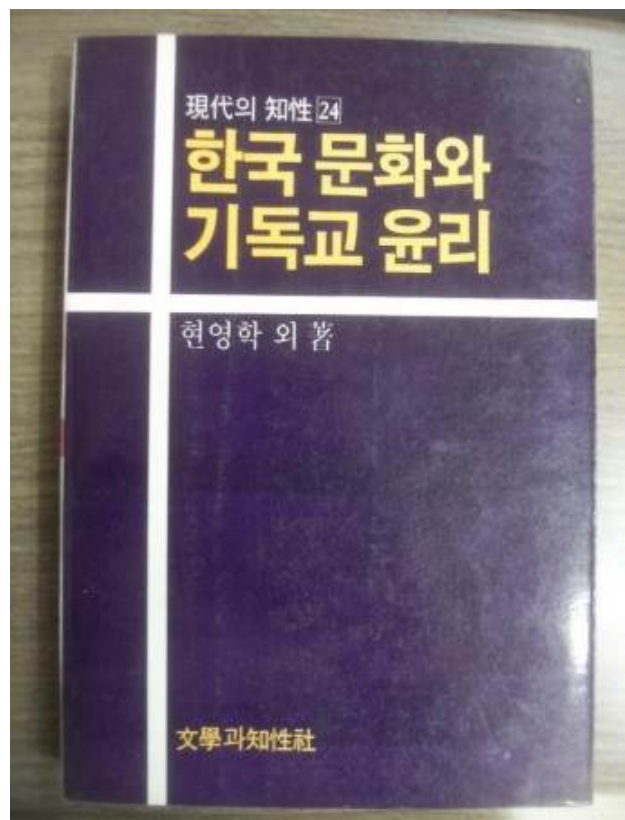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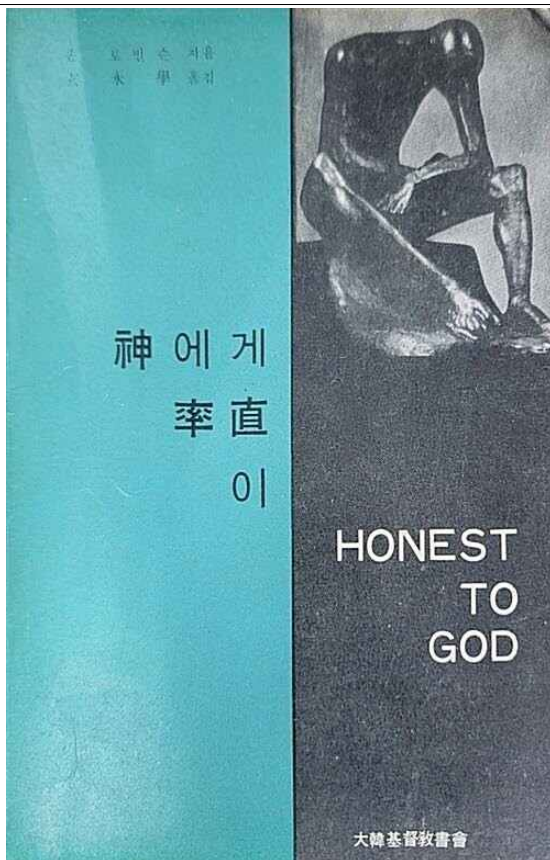
1960년대 말 서구 신학계의 문제작 ‘신에게 솔직히’를 번역 출간해 한국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는 한국과 아시아의 정치·사회적 현실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신학 논문을 수 차례 발표해 세계 신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에 충격받아 독재에 맞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주력했다. 그 밖에 종교인 강원용, 김수환, 사촌 처남인 윤보선등과 함께 反 박정희, 박정희 퇴진 운동에 줄곧 동참했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교수 1백34인 시국선언문에 서명했던 그는 신군부에 의해 80년부터 4년간 강제 퇴직당했다가 1984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복직했으며, 86년 정년 퇴임하였다. 퇴임 후에도 이화여자대학교신학과 명예교수, 일본간세이가쿠인대 신학부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그 밖에 후학 양성에도 관심을 두고 여러 후학을 양성했고, 가난한 고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저서 및 역서로는 한국문화와 기독교윤리:현대의 지성 24/역서 <놀린 자의 하느님> (제임스 콘 저)/A.리처드슨 《과학 역사 신앙》(1958)/S.케이브 《신약성서와 윤리문제》(1959)/P.틸리히의 《존재에의 용기》(1960), 논문으로는 《민중 속에 성육신해야》 / 《민중, 고난의 종, 희망》 / 《예수의 탈춤》(1997.11)이 있다. 서양 중심으로 전개된 기독교 신학에 한국적 요소를 접목했다는 평가가 있다. 군사정권의 억압이 극심하던 70년대에 고(故) 서남동, 안병무씨 등과 함께 한국 민중신학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는 1970년대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등 ‘1세대 민중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4년 1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사망했다.

참고 서적

- 현영학, 한국문화와 기독교윤리:현대의 지성 24 (문학과지성사, 1986)
- 제임스 콘, <놀린 자의 하느님> (현영학 번역, 1980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윤치호, 《윤치호 일기 (1916-1943)》 (김상태 편 번역, 역사비평사, 2001)
- [부고] 현영학 前 이화여대 교수동아일보 2004.01.14
- [\https://web.archive.org/web/20131212210325/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



봉학 鳳學 28세. 흥남철수의 영웅, 의사. 한국계 미국인 의사

원국의 차남, 한국 전쟁 당시 미군 통역으로 참전하여 흥남 철수 작전에서 에드워드 아먼드 미 10군단장에게 간절히 요청하여 북한에서 탈출하고 싶어 했던 피난민 98,000여 명을 미군 함에 태워 살려낸 ‘한국의 신들러’로 불린다. 1922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현원국 목사와 한국 장로교 여전도회장을 역임한 신애균 여사 사이에서 태어나 당시 함경도의 명문 함흥고보와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했다. 해방 후 가족과 함께 38선을 넘어 월남했고, 미국 버지니아주립의과대학에서 유학하여 임상병리학 펠로우십을 수료했다. 1950년 3월 귀국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다가 한국전쟁을 맞았다.

1950년 6월28일 서울 함락 때, 피난민 대열에 섞여 들어 피난지 부산에서 해군에 입대했다.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지 3개월, 그는 의사로서 보다는 고급 영어를 하는 통역관으로 중용되었다. 1950년 10월 중순, 해병대사령관 신현준과 미 제10군단장 에드워드 M. 알몬드와의 통역 문관으로 있다가 흥남 철수 작전에서 알몬드에게 북한 주민의 승선을 요청해 98,000여 명을 미군 LST 함에 태우게 해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렸다. 영화 <국제시장>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흥남철수작전의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다. 현봉학이 흥남 철수 당시, 알몬드 장군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다. 작전 당시인 1950년 12월 23일 흥남 부두는 미군과 한국군 105,000명과 피난민 90,000명으로 혼잡한 상태였다. 미국 군함과 비행기가 중공군에게 폭격하는 동안 군함과 상선 약 200척이 흥남 철수 작전에 동원됐다. 당시 피난민이 함께 승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봉학은 자신이 승선하고 있던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P. 라루 선장에게 최대한 많은 수의 피난민을 태워 구출해 달라 간곡하게 요청했고 이에 탄복한 라루 선장은 배에 실려있던 무기를 모두 버리고 피난민을 최대한 태우라고 명령했다. 피난민들도 자신의 짐을 버리고 승선해 2,000명이 정원인 배에 모두 14,000명이 탈 수 있었다. 피난민이 승선하는 동안 미 육군 3사단은 후방을 방어하다가 3명이 죽었으며 메리디스 빅토리호는 28시간 동안 항해해서 부산항으로 이동했다. 음식과 물, 이불, 의약품이 모두 부족했으며 선원들은 옷을 벗어 여성과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였고 승선한 젊은이 중 일부는 음식을 달라며 폭동을 일으키려고도 하였다. 하루 뒤인 12월 24일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이미 피난민으로 가득 찼다는 이유로 입항이 거절됐다. 라루 선장은 하는 수 없이 50마일을 더 항해해서 크리스마스인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피난민들을 하선시켰다. 이틀간의 철수 과정 중 피난민들은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에 선박 구석구석뿐 아니라 차량 밑, 장갑차 틈에서 서로의 웅크린 몸에 의지하며 버텼던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다고도 피난민들은 회고한다. 이 철수 작전 이후 그는 ‘한국의 신들러’라고 불리었다. 이틀간의 항해 도중 아기 5명이 태어났다.

이후 1959년 펜실베이니아 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부터 1962년까지 뉴저지주 플레인필드에 있는 밀렌버그 메디칼센터의 병리전문의로 일했고, 1962년부터 1987

년까지는 뮐렌버그 메디칼센터 연구소장으로 재직했다. 또 버지니아 의대, 콜럼비아 내과·외과 의대, 필라델피아의 토머스 제퍼슨 의과대, 펜실베이니아 의과대 등에서 병리학 및 혈액학 교수로 재직했다. 연세대 의대 객원교수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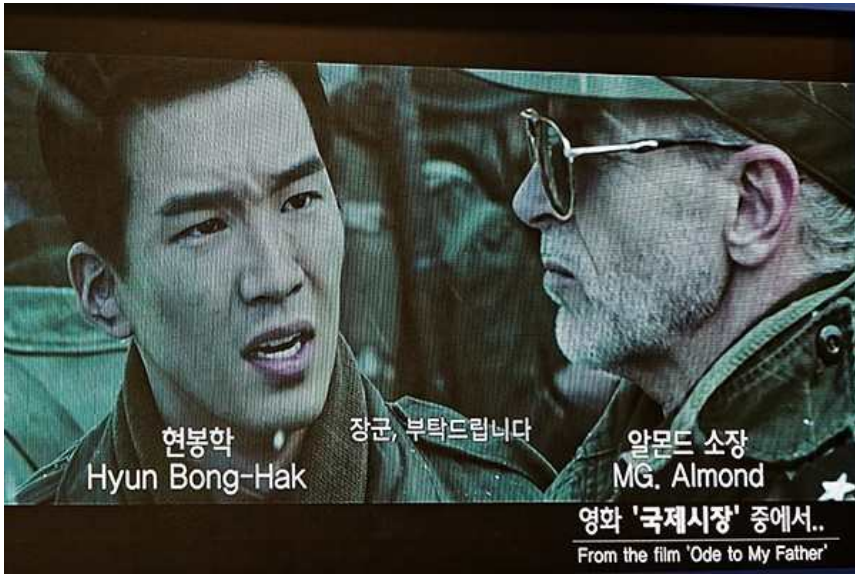
미국 임상병리학회, 국제혈액학회, 미국 병리학회 회원, 한국임상병리학회 명예 회원으로 활동했다. 한국 보건부장관 고문, 미 의학회 편집위원, 미 병리학회지 편집위원을 지내며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해 한미 양국 의학계에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임상병리학연구로 1992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임상병리학회(ASCP)가 주는 세계적 권위인 '이스라엘 데이비슨상'을 수상했고, 1996년 제1회 연세의학대상을 받았으며, 2005년 제2회 서재필 의학상을 받았다. 저서로 <중공의 한인들>(1984), <나에게 은퇴는 없다> (역사비평사 간, 1996년), <한국의 선들러, 현봉학과 흥남 대탈출>(1999) 등이 있다.

2007년 11월25일 미국뉴저지주뮐렌버그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2014년 12월 국가보훈처의 이달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 서울 세브란스 빌딩 앞에 현봉학 선생 동상을 세웠다.



흥남 철수(출처 :현봉학 박사 기념관)



시학 時學 28세. 해군 제독, 해군 창설의 주역.

월국의 차남,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해군 창설의 주역이다. 6·25 전쟁에서 활약하였다. 1924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목사 현원국, 어머니는 독립운동가 겸 교육자로 대한애국부인회 등에 참여한 신애균이다. 함남 영생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조국이 광복되자 공산군을 피해 월남하여 1946년 해군병학교(해군사관학교 전신) 1기로 임관했다. 그는 임관이후 초창기 해군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각종 대·소 작전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특히 1950년 7월 첫 번째 참전했던 서해안 봉쇄작전에서는 신병 70명을 출동 중에 훈련시켜 남하 중인 12척의 적 수송선단을 격퇴하였으며, 50년 8월 통영작전에서는 고성으로부터 통영에 진출하려는 적을 맞아 백발백중의 함포사격으로 해병대의 통영 상륙작전을 지원함으로써 낙동강 최후방어선을 수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후 적이 부설한 기뢰를 제거하는 목포항 소해작전, 3,000여 개의 기뢰를 제거하는 원산만 소해작전, 황해도 월사리 아군 특수부대 상륙 지원, 황해도 피난민 구출 작전에 참전하여 60,000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하는데 기여하는 등 전쟁 기간에 지상 작전 지원과 피난민 철수에 이바지하였다. PC-704 함장으로서는 황해남도 연백으로 진격하여 반공청년단원 100여 명을 구출하였고, 월사리에는 국군 유격대 1,200명을 상륙시켜 조선인민군6군단 예하 1개 대대를 전멸시키기도 했다. 6.25 전쟁 당시 활약의 공로로 그는 금성을지, 금성충무, 미국동성훈장 등을 받았다.

6·25 전쟁 이후에는 1전단사령관, 함대사령관, 해군사관학교 교장 등 주요 직위를 수행하며 해군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했다. 1966년 해군 소장으로 예편한 후 모로코, 이란, 멕시코 대사직을 수행하며 외교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1989년 7월 18일 사망했다. 1997년 국

방부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호국의 인물로 선정되었고 경상남도 거제군 옥포만에 흉상이 설립되었다. 2000년 4월과 2013년 7월의 호국 인물, 2018년 3월에는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해군 현시학함 장병. 故현시학 제독 추모

↑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7795> 인터넷뉴스팀(2018년 3월 1일). 北수송선단 격퇴 현시학 소장, '3월의 6·25 전쟁영웅'. 블루투데이. 2018년 9월 23일에 확인함.]

정주 正柱 29세

1963년생, 봉학鳳學의 아들이다. 미국 뉴욕프렛트대학 미대 석사

상백 尙白 20세, 1609년생 (광해군 2년, 기유년)

인조17년 (1639년)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조선시대 3년마다 치르는 정기적인 과거시험으로 합격정원은 33인) 병과(丙科) 21위로 급제.

중균 仲均 29세, 1939년생, 대종회 사무국장, 대종회 지도위원

치웅 治雄 34세, 1953년생, 집단에너지사업 대표, 대종회 부회장

명철 明徹 27세, 1944년생, 석기시대 대표, 대종회 이사

흥록 興祿 29세, 1949년생, 육군본부 부이사관, 대종회 이사

희철 熙哲 29세, 1959년생, 씨엔에스디지텍 대표, 대종회 이사

정숙 貞淑 30세, 1965년생, 대종회 이사

태옥 泰玉 31세, 1935년생, 함흥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충국 忠國, 31세. 1958년생, 중부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재계장, 대종회 감사

순여 順汝 32세, 1929년생, 대종회 이사

윤경 允暻 32세, 1973년생, 대종회 이사

운하 雲河 33세, 자 윤린(雲麟), 1944년생, 진흥기업 근무, 대종회 이사

성림 成林 34세, 1941년생, 대종회 이사